

서울아트가이드 Seoul Art Guide

Vol. 159
2015 03



- ▣ 창경원에서의 소싸움? 이응노의 드로잉
- ▣ 민화, 미술의 대중화 현상
- ▣ 한국미술의 국제화를 위한 미술용어 통일...
- ▣ 공공미술 아는 만큼 보인다
- ▣ CONTENTS p.24
- ▣ Exhibitions of Editor's Choice p.106

www.daljin.com

The 4th Catholic Art Competition
Martyrdom of the Area outside Seosomun

가톨릭 미술 공모전

주제 서소문 밖의 순교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관 절두산순교성지
문의 02.3142.4504~5



제4회 가톨릭미술공모전



접수기간 2015.7.7~7.14

www.jeoldusan.or.kr

공모분야	접수장소	전시장소	시상내역	인원	상금액
평면 200호(259.1x193.9cm)이내 연작인 경우에도 전체가 200호 규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6(합정동) 절두산순교성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전시실 (2015.9.5~2015.12.31) 갤러리1898(구 평화화랑)에서 2차 연장전시(추후 공지예정)	대상(매입상)	1인	50,000,000(원)
입체 2x2x2m 이내 미디어아트와 러닝타임은 5분이 넘지 않도록 함	응모자격 국적, 종교, 성별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인 자	전시일정 2015.9.5~2015.12.31 (수상작에 한하여 전시)	최우수상(매입상)	분야별 각 1인	20,000,000(원)
			우수상(매입상)	분야별 각 2인	각 10,000,000(원)
			장려상(매입상)	분야별 각 3인	각 5,000,000(원)
			입선	분야별 각 5인	각 1,000,000(원)

ART BOOK 아트북 신간



한국근대미술시장사자료집 전6권

김상엽 편저
경인문화사, 3840쪽, 450,000원

『한국근대미술시장사자료집』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서 광복 이후, 195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간행된 경매도록과 기타 전시회 도록, 기념 도록, 회칙 등 미술시장과

관련된 자료 70여 종을 모아 영인하고 편집한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에 사진으로 수록된 작품은 3,160점, 목록은 15,980점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이 자료집은 우리나라 미술시장 관계 최초의 자료집으로서 이 자료집의 발간으로 우리는 근대 미술의 유통과 흐름을 개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갖게 되었다.

1922년 설립된 '경성미술구락부(京城美術俱樂部)'는 당시 조선(한국) 최초이자 유일한 미술품 경매회사로서 우리나라 미술시장사와 미술품 유통의 근대화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경성미술구락부에서 발간한 경매도록은 당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경매시장에서 유통된 우리나라 미술품 사진과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경매도록을 통해 우리는 한국 근대 미술시장의 양상과 규모를 알 수 있음은 물론 지금은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소중한 우리 미술품의 소재를 추적함과 함께 당시의 감식안(鑑識眼), 수장가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확보하였다.

경매도록은 근대에 간행되었을 뿐 수록된 내용은 전통시대의 미술품에서 간행 당시에 이르는 미술품을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경매도록에 수록된 무수한 작품은 우리 미술의 양적, 질적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근대미술시장사자료집』은 우리나라 근대의 미술시장과 미술품 유통구조, 수장가의 이해에 기여함은 물론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의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소중한 보고(寶庫)이다.

『한국근대미술시장사자료집』은 자료의 원형 그대로 전체를 영인하고 순서대로 배열한 자료집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시의 수집과 감평(鑑評)의 수준 및 형태의 근대적 변화와 함께 고미술품의 이동 경로 등 이른바 '출처'와 '유래'를 파악하고 규명할 수 있다. 출처와 유래는 고미술품의 가치와 파악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울러 우리나라 미술품은 물론 당시 거래된 중국과 일본의 미술품도 실려 있기 때문에 우리 미술품 시장의 역사와 함께 근대 동아시아 미술품 유통사를 구성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자료집으로서도 중요하다.

일제강점기의 '경매도록류'가 중심이 되었지만 『한국근대미술시장사자료집』이라 이름 지은 것은 우리의 미술시장이 조선시대에서 일제시기, 광복 이후, 1950년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전통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광복 이후 1946-48년의 경매도록은 광복 이후의 혼란기에도 우리 미술시장이 기능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실례(實例)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울러 1956-57년의 경매도록을 통해 1950년대 당시의 고미술시장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림학 /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자료실



DMZ 구본창 사진집 : 눈빛사진가선1 (세트10권)

구본창 지음
눈빛, 88쪽, 12,000원

한국사진의 위상을 결집하기 위한 '눈빛사진가선' 1차분 10종이 출간되었다. 제1권 구본창의 작업은 DMZ의 철조망, 전쟁기념관의 포탄과 무기류, 반합, 수통, 안경 등 전쟁기념관의 수장고에서 찾아낸 사물들을 한 가지씩 단순한 배경 중앙에 놓여서 전쟁의 참혹함과 분단의 아픔을 느끼게 한다.



거리의 디자인

카를레스 브로토 지음, 이지민 옮김
한스미디어, 312쪽, 32,000원

불특정 시민 즉 모두를 섬기는 디자인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 보고서이다. 전 세계 거리의 구조물과 시설물과 같은 환경 디자인, 공공 디자인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공공의 공간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디자인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나무 집 예찬

김병중 지음, 김남식 사진
열림원, 224쪽, 14,000원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가 20년간 마음속에 그리다 짓고 살게 된 집이 있다. 그 집에 대해 쓴 이 책은 그러나 '집 잘 짓는 법'이나 '집 잘 꾸미는 법'을 담고 있지 않다. 대신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작은 나무 집 한 채를 쌓아 올리는 과정과, 그렇게 지어진 집의 뒷마루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느낀 작고 소담한 행복을 이야기한다.



미학과 미술

박일호 지음
미진사, 264쪽, 22,000원

원시 시대 미술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이라 일컫는 현재의 미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서양 미술을 미학의 흐름과 역사 속에서 조망한다. 저자의 오랜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양 미술과 미학의 커다란 윤곽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며, 다양한 작품을 예로 들어 예술의 의미와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손의 흔적 : 돌과 바람의 조형, 이타미 준

유이화 엮음
미세움, 240쪽, 19,800원

아시아인 최초로 프랑스 국립 기메 박물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재일교포 건축가 이타미 준의 건축 사상과 철학을 담았다. 왕성한 건축 활동을 하던 중 2011년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타미 준의 건축 작품과 드로잉, 스케치, 수필을 그의 파트너이자 딸인 유이화 소장이 모아 작품집으로 엮었다.



시린 아픔

소피 칼 지음, 배영란 옮김
소담출판사, 284쪽, 19,800원

프랑스의 유명 설치미술가이자 사진작가인 소피 칼의 이별 극복기를 담은 사진 수필집이다. 인생에서 겪는 평범하고 사소한 희로애락을 독특한 예술관으로 승화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인 소피 칼답게, 그녀는 가슴 쓰린 배신감과 아픔을 가슴속에만 품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토로한다.